

##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와 프랑스 민족감정의 형성

홍용진(고려대학교)

### I. 들어가며

성 디오니시우스(프랑스어로 성 드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로마 제정기에 현재의 파리(당시 이름은 루테티아)에서 두 동료인 성 루스티쿠스(Rusticus) 및 엘레우테리우스(Eleutherius)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다가 250년 경 몽마르트르 언덕(Montmartre; mons Martyrum)에서 참수를 당한 순교자다. 그는 목이 잘렸음에도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고 현재 생드니 대성당이 위치한 곳까지 걸어와 죽었다는 전설을 남기고 있으며 초대 파리 주교로 알려져 있다. 그가 끝내 사망한 장소에 그의 무덤이 들어섰고 일설에 따르면 5세기 말 여기에 다시 성녀 주느비에브(Sainte Geneviève)가 그를 기려 성당을 짓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451년 갈리아로 침입한 훈족을 막아내고 파리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성녀 주느비에브는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각별한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성녀 주느비에브 사후에 집필된 『성녀 주느비에브의 생애(Vita Genovefae)』(520)<sup>1)</sup>라는 저술이 성 디오니시우스를 처음 언급하고 있으며, 얼마 후 투르의 그레고리우스 또한 『프랑크인들의 역사(Historia Francorum)』<sup>2)</sup>에서도 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설의 탄생은 9세기에 생드니 수도원장 힐두이누스(Hilduinus, 770-855)가 집필한 『성 디오니시오스의 생애(Vita)』<sup>3)</sup>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말한 전설 외에도 힐두이누스는 파리에서 순교한 디오니시우스를 1세기 아테네 주교 디오니시오스 오 아레오파기테스(Dyonisios o Areopagites)와 동일시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후 5세기 말-6세기 초에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테스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신학자인 위 디오니시오스(Pseudo-Dyonisios)가 덧붙여져 세 명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모두 성 디오니시우스로 동일시되었다.

이미 7세기 전반 메로베우스 왕조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고베르투스 1세(Dagobertus I<sup>er</sup>, 629-639)부터 성 디오니시오스 및 생드니 성당은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다고베르투스 1세는 파리에 가까이 위치한 생드니 수도원과 성당의 확장을 후원하였고 나아가 이곳을 왕실 납골당으로 삼아 스스로가 이곳에 묻혔다. 즉 다고베르투스 1세는 왕권과 파리의

1) R. P. Pierre Lallemand(ed. & tra.), *La vie de sainte Geneviève. Patronne de Paris et de la France, écrite en latin dix-huit ans après sa mort*(Paris, 1859), pp. 15-16(ch.XIII).

2) Grégoire de Tours, *Histoire des Francs. Livres I-VI*, H. Omont(ed.)(Paris, 1886), pp. 19-21(Livre I, XXVIII).

3) R. J. Loenertz, O.P., "La légende parisienne de S. Denys l'Aréopagite. Sa genèse et son premier témoin", *Annalecta Bollandiana*, t.69(1951), pp. 228-231.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성 디오니시오스와의 결합을 통해 왕권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첫 번째 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9세기 랑스 대주교 힝크마루스(Hincmarus, 806-882)가 집필한 『프랑크인들의 왕 다고베르투스 1세의 업적(Gesta Dagoberti I regis Francorum)』에 의해 보다 발전된다. 여기에서는 다고베르투스가 겪은 성인과 관련된 놀라운 기적들이 다고베르투스 왕이 왜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sup>4)</sup>에 애착을 가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sup>5)</sup>

하지만 메로베우스 왕조나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는 사실 다른 성인 숭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그 이야기 또한 성자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왕권의 수호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유력자와 다른 성인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파리와 왕권의 수호성인은 왕국 전체를 대표한다기보다 한 지역의 수호성인에 불과했다.<sup>6)</sup> 이는 프랑스라는 왕국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통일적인 모습을 갖추거나 공통의 기억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성 디오니시우스를 통해 프랑스 왕국에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왕국 전체에 카페왕조의 권위가 이식되기 시작한 13세기 전반기였다. 이때부터 생드니 수도원과 왕권은 상징적인 선언을 넘어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글은 13세기 전반기부터 시작된 왕권과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관건이 되는 지점은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와 관련된 왕권의 정치적 전략이며 이는 14세기 초 필리프 4세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왕권의 급성장 및 국가체제의 등장과 연관된다. 특히 필리프 5세 시기에 왕실 후원으로 완성된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순교 및 그의 동료들(Vie et martyre de saint Denis et ses compagnons)』은 성 디오니시오스의 성자전과 왕국의 역사 사이의 결속력은 물론 세 왕조 사이의 연속성을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왕권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은 14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여러 문학작품들에 흡수되어 나타난다. 백년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 등장한 이 작자미상의 이야기들은 왕권이 선전한 내용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정치사회에 전파되었는지 알려준다.

## II. 생드니 수도원과 왕조의 기억

13세기에 왕권이 성 디오니시우스를 자신들의 문화자본으로 만드는 과정은 생드니 수도원이 왕권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이권들을 확보하는 과정과 함께했다. 따라서 성 디오니시오스의 이야기와 프랑스 왕조사의 결합은 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수도사들의 생존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왕국 내 생드니 수도원의 특권적 위치를 강조했다. 그 첫 번째가 (중세에 종종 그러하듯 날조되는 경우가

4) 가톨릭계에서는 ‘숭배’라는 말 대신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숭배’나 ‘공경’ 모두 영어의 ‘cult’, 프랑스어의 ‘culte’의 번역어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성 디오니시우스의 정치적인 이용이 관건인 만큼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숭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5) Gabrielle M. Spiegel, “The Cult of Saint Denis and Capetian Kingship”, *Journal of Medieval History*, vol.1, n.1(april 1975), pp. 51-52; L. Theis, “Dagobert, Saint-Denis et la royauté française au Moyen Âge”, B. Guenée (dir.), *Le métier d'historien au Moyen Âge. Étude sur l'historiographie médiévale*(Paris, 1977), pp. 19-30.

6) L. Levillain, “Études sur l'abbaye de Saint-Denis à l'époque Mérovingienne”,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82(1921), pp.5-116; G. Spiegel, “The Cult of Saint Denis”, pp. 48-53.

많았던) 수도원의 사회·경제적 특권들을 왕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왕권과 생드니의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는 것이었다.<sup>7)</sup> 이 두 번째 작업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가 성 디오니시우스의 성자전을 프랑스 역사와 결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드니 수도원 자체가 왕권 기억의 저장소가 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작업의 대표작은 1223년 익명의 수도사가 집필을 완료한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행적(Vita et actus beati Dionysii)』으로 이 저작은 처음으로 힐두이누스와 힝크마루스의 저작들을 종합하면서 동시에 성인의 이야기를 프랑스의 역사에 삽입하고 있다. 이 책은 성 디오니시우스의 보호 아래 있는 프랑스 왕권이 핵심주제인 만큼 프랑스의 역사는 다고베르투스 1세로 시작하여 필리프 2세가 사망한 1223년까지를 다루고 있다.<sup>8)</sup> 이후 루이 9세 치세인 1250년에는 프랑스어 번역본(BNF, n.a.f. 1098)이 등장했으며, 이는 생드니 수도원에서 성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는 세속인들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그렇다면 이 번역본은 13세기 중반부터 세속인들 사이에 프랑스 왕권과 수호성인에 얽힌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13세기 초부터 생드니 수도원은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이 다고베르투스 이후 왕실 납골당 역할을 담당해왔던 만큼 왕조의 과거와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생드니 수도원의 임무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물론 이곳 수도사들은 아직 왕으로부터 공식 역사가의 직함을 받지는 못했으며 이러한 직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14세기 후반 샤를 5세 치세에 가서야 국상(Chancelier) 피에르 도르주몽(Pierre d'Orgemont)이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역사기술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1437년에 가서야 샤를 7세는 급료를 받는 공식역사가인 ‘프랑크인들의 역사가(Francorum historiografus)’라는 직함을 생드니 수도사 장 샤프티에에게 부여한다. 여췌든 후자의 예에서와 같이 생드니 수도원과 왕조사 서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10)</sup>

그 첫 인물인 리고르(Rigord)는 1208년 사망할 때까지 『존엄왕 필리프의 행적(Gesta Philippi Augusti)』을 집필하였고 스스로를 ‘프랑스 왕의 연대기 작가(regis Francorum cronographus)’라고 칭했다. 루이 9세 시기에는 도미니코 수도사 뱅상 드 보베(Vincent de Beauvais)라는 걸출한 인물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13세기 후반 이후로 생드니 수도원은 왕국의 공식역사가로서의 입지가 확고히 다져지기 시작했다. 필리프 3세 치세에는 프리마(Primat)가 『국왕 이야기(Roman des rois)』(1274)를 저술하여 후일 『프랑스 대연대기(Grandes Chroniques de France)』의 기반을 마련하였다.<sup>11)</sup> 필리프 4세 치세에는 기욤 드 낭지(Guillaume de Nangis)가 천지창조부터 1300년까지를 다룬 『연대기(Chronicon)』를 저술했고 익명의 동료들이 그 이후의 사건들을 후속편(continuation)으로 추가하였다.<sup>12)</sup>

필리프 5세 치세에는 이브(Yves)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순교 및 그의 동료들(Vie et martyre de saint Denis et ses compagnons)』(1316년 경)<sup>13)</sup>을, 기욤

7) G. Spiegel, “The Cult of Saint Denis”, pp. 53-54.

8) C. J. Liebman, *Etude Sur La Vie En Prose de Saint Denis*(Geneva & New York, Humphrey Press Inc., 1942).

9) L. Delisle, “Notice sur un livre de peinture exécuté en 1250 dans l’Abbaye de Saint-Denis”,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38(1877), pp. 444-476.

10) B. Gunée, *Histoire et culture historique dans l’Occident médiéval*(Paris, Aubier Montaigne, 1980), pp. 340-347.

11)

12) Guillaume de Nangis, *Chronique de Guillaume de Nangis et des ses continuateurs*, 2 vols., H. Géraud(ed.)(Paris, 1843).

스코(Guillaume Scot)는 1317년 그의 『연대기(Chronocon)』<sup>14)</sup>을 저술하였다. 이후 필리프 6세의 시대에는 무명의 수도사가 기욤 드 낭지의 『연대기』를 축약하여 필리프 6세를 위한 일종의 역사교본을 만들기도 했다.<sup>15)</sup> 이어서 장 2세의 치세에는 리샤르 레스코(Richard Lescot)가 또 다른 라틴어 연대기를 저술하여 프리마, 기욤 드 낭지의 저작들과 함께 샤를 5세 시기에 출간될 『프랑스 대연대기』 기본자료를 구성하게 된다.<sup>16)</sup> 샤를 6세 치세에도 미셸 팡투앙(Michel Pintoin)은 『샤를 6세 연대기(Chronicorum Karoli sexti)』를 저술하여 프랑스 내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sup>17)</sup>

성 디오니시우스의 보호 아래 왕조의 기억을 보존하는 행위는 역사서 집필에만 그치지 않았다. 생드니 수도원은 왕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있는 납골당이기도 했는데, 특히 여기에는 카페 왕조의 왕들뿐만 아니라 다고베르투스투스 1세와 같은 메로베우스 왕과 서프랑키아의 첫 왕인 카롤루스 2세와 같은 카롤루스 왕들의 유해도 함께 매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13세기까지 카페 왕조는 앞선 두 왕조들과 관련하여 정통성 결핍과 관련된 세간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것은 위그 카페(Hugues Capet)가 카롤루스 왕조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내용으로 루이 7세 치세에는 심지어 카롤루스 혈육이 아닌 찬탈자는 7대에서 단절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sup>18)</sup> 그리하여 루이 7세는 카롤루스 가문의 후계인 블루아 백작 티보 4세의 딸 아델과 결혼하였고 이들 사이에서 ‘신이 주신(Dieudonné)’ 아들 필리프 2세가 태어났다.<sup>19)</sup>

13) L. Delisle, “Notice sur un recueil historique présenté à Philippe le Long par Gilles de Pontoise, abbé de Saint-Denis”, *Notices et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t. 21(Paris, 1865), pp. 249-261; H. Martin, *Légende de saint Denis. Reproduction des miniatures du manuscrit original présenté en 1317 au roi Philippe le Long. Introduction et notices des planches*, Paris, 1908.

14) J.-D. Guigniaut & N. de Wailly, *Recueil des historiens des Gaules et de la France*, t.21(Paris, 1855), pp. 201-219.

15) H. Omont, “Anonyme, auteur d’une «Chronique universelle» en françai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36(Paris, 1927), pp. 631-633; A. Surprenant, “«Une petites croniques abregees sur Vincent»: nouvelle analyse du manuel dit ‘de Philippe VI de Valois’”, M. Paulmier-Foucart, S. Lusignan, A. Nadeau(dir.), *Vincent de Beauvais: intentions et réceptions d’une œuvre encyclopédique au Moyen Âge* (Montréal/Paris, 1990), pp. 439-466.

16) J. Lemoine(ed.), *Chronique de Richard Lescot, religieux de Saint-Denis (1328-1344), suivie de la continuation de cette chronique (1344-1364)*(Paris, 1896). 한편 『프랑스 대연대기』는 생드니에서 기술된 연대기들의 종합 작품이었으나 그 편찬책임은 생드니 수도사가 아닌 앞서 언급한 국상 피에르 도르주몽이 담당했다. 『프랑스 대연대기』에 대한 개설적인 소개는 B. Guenée, “Les Grandes Chroniques de France. Le Roman aux roys (1274-1518)”, P. Nora (dir.), *Les lieux de mémoire, II-1: La nation*(Paris, Gallimard, 1986), pp. 189-214.

17) M. L. Bellaguet(ed./tra.), *Chronique du religieux de Saint-Denys*, 3 vols.(Paris, 1994). 이에 대한 내용분석으로는 B. Guenée, *L’opinion publique à la fin du Moyen Âge d’après la «Chronique de Charles VI» du Religieux de Saint-Denis*(Paris, Perri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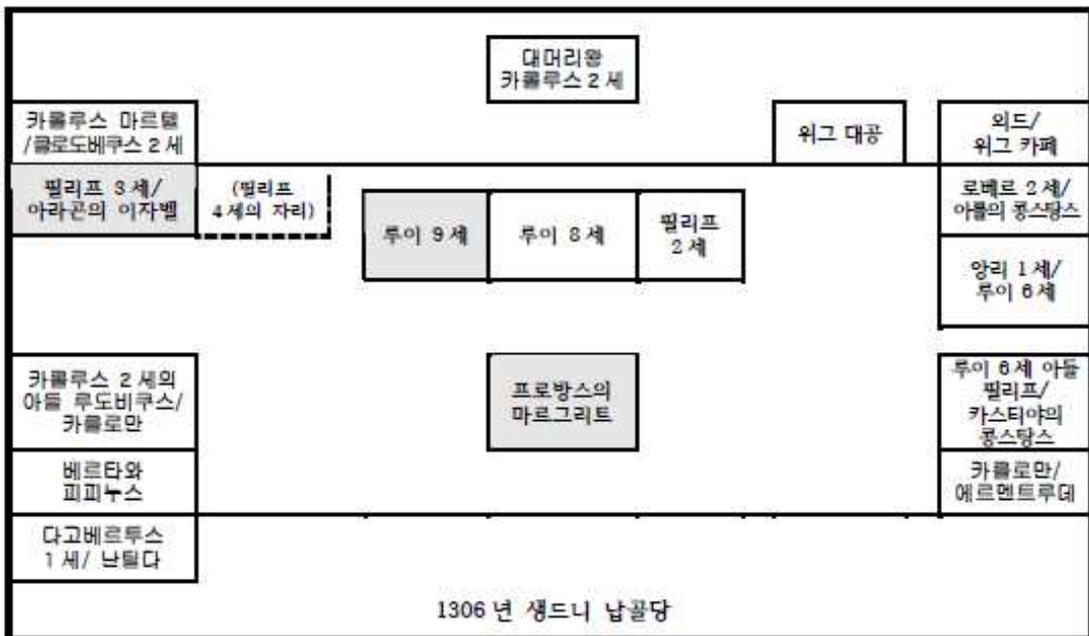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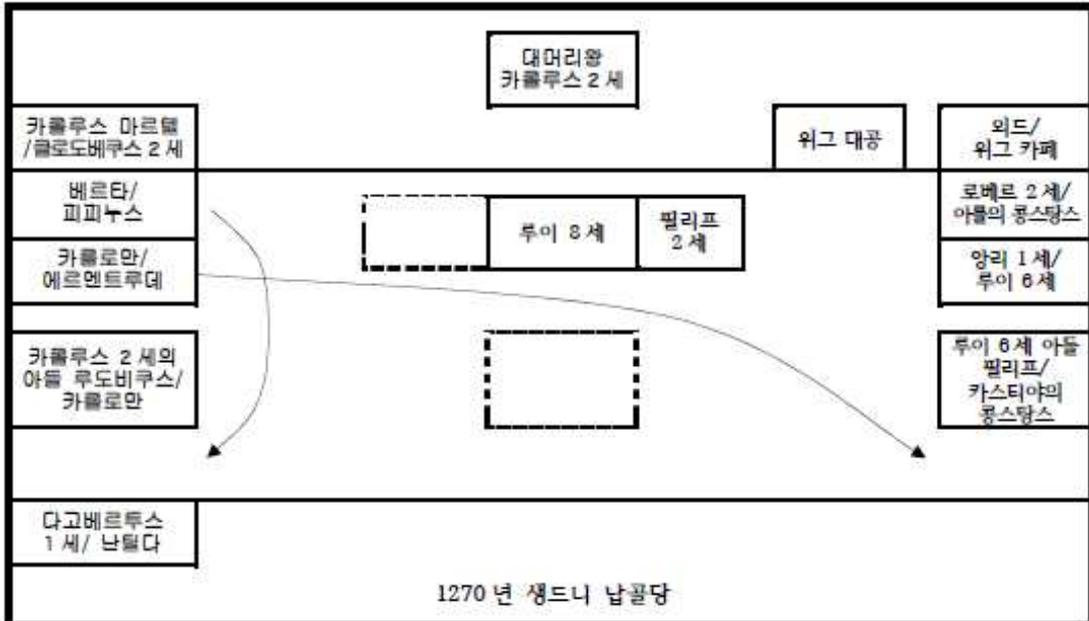
18) 카롤루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도비쿠스 5세 이후 위그 카페, 로베르 2세, 앙리 1세, 필리프 1세, 루이 6세, 루이 7세, 필리프 2세까지 7대를 이루었다.

19) G. Spiegel, “The *Reditus Regni ad Stirpem Karoli Magni*: A New Look”,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n. 2 (1971), pp. 145-174 ; E. A. R. Brown, “*Vincent de Beauvais and the reditus regni francorum ad stirpem Caroli imperatoris*”, M. Paulmier-Foucart, S. Lusignan, A. Nadeau(dir.), *Vincent de Beauvais : intentions et réceptions d’une œuvre encyclopédique au Moyen Âge* (Montréal/Paris, 1990), pp.160-162.

그림 1. 1270 년과 1306 년 생드니 수도원 성당 내 석관 위치

굴림체: 메로베우스/카롤루스 왕들의 석관  
 바탕체: 카페 왕들의 석관

화살표: 1306 년의 카롤루스 왕들의 석관 이동  
 회색: 1270 년 이후 설치된 석관



자료출처: M. Félibien, *Histoire de l'abbaye royale de Saint-Denis* (Paris, 1706), p. 550; A. W Lewis, *Le Sang royal. La famille capétienne et l'Etat, France, X<sup>e</sup>-XIV<sup>e</sup> siècle*, J. Carlier(tra.) (Paris, 1986), pp. 280-281; E. A. R. Brown, "Burying and Unburying the King of France", R. C. Trexler (ed.), *Persons in Groups: Social Behavior As Identity Formation in Medieval and Renaissance Europe* (Binghamton, 1985), pp. 248-249.

이후로도 카페왕조는 세 왕조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프 4세는 1306년 부왕 필리프 3세의 묘를 생드니 납골당에 안치하면서 기존의 몇몇 석관들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당시까지 납골당 내 석관들의 배치는 메로베우스-카롤루스왕조가 남쪽(그림 왼쪽)에, 카페왕조는 북쪽(그림 오른쪽)에 위치하여 마치 두 계열의 왕들이 명확하게 분할되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었다. 이미 필리프 2세와 루이 8세의 묘는 카롤루스 2세 아래의 중앙부로 나아가 양자의 경계선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필리프 4세는 자신과 부왕 필리프 3세의 묘를 카롤루스왕조의 공간으로 침투시키고 피피누스를 다고베르투스 곁으로, 카를로만을 루이 6세 곁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세 왕조가 하나의 연속성 속에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했다.<sup>20)</sup>

이상과 같이 13-14세기에 프랑스 왕권은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온' 왕조의 기억을 생드니 수도원에 보전하고자 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납골당을 통해, 정신적으로는 연대기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는 성 디오니시우스의 왕권 수호가 더 이상은 다고베르투스 1세의 기적 일화와 같은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왕권은 왕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왕조의 연속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왕국의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게 된다. 즉 성 디오니시우스는 왕 개인이 아닌 추상화된 왕권의 영속성을 수호하는 성인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 디오니시우스는 왕조의 연속성과 왕권의 영속성을 수호하는 자이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왕권 영속성은 어디까지나 왕조의 '자연적인'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인은 여기에 '은총'을 내려 이를 완성한다.<sup>21)</sup>

### III.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순교 및 그의 동료들』

성 디오니시우스의 성자전과 왕조사의 서술이 결합된 텍스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순교 및 그의 동료들(Vie et martyre de saint Denis et ses compagnons)』<sup>22)</sup>라는 저작이다. 1313년 또는 1314년에 필리프 4세의 주문으로 집필되기 시작한 이 저작은 그가 사망하자 작업이 지체되었다가 결국 필리프 5세에게 헌정되었다. 이 책의 헌정자는 생드니 수도원장 질 드 폰투아즈(Gilles de Pontoise)였지만 실제로 이 저작을 집필·편집한 자는 그림 2에서 질 드 폰투아즈 곁에 있는 이브(Yves)라는 이름의 수도사였다(그림 2). 이 저작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제작되었다. 1부<sup>23)</sup>는 서문 및 성 디오니시우스의 출생부터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성 바울의 설교를 접하는 시기까지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

20) A. Erlande-Brandenburg, *Le roi est mort: étude sur les funérailles, les sépultures et les tombeaux des rois de France jusqu'à la fin du XIII<sup>e</sup> siècle* (Paris, 1975), p. 83.

21) 이러한 생각은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Summa Theologia)』의 한 구절(1<sup>a</sup> q.1 a.8 ad 2)와 연관된다. "Cum enim gratia non tollat naturam, sed perficiat, oportet quod naturalis ratio subserviat fidei: sicut et naturalis inclinatio voluntatis obsequitur caritati." 물론 이 구절은 신앙의 입장에서 자연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신앙이나 초자연보다는 자연과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세속권력의 입장에서 강조점은 미묘하게 바뀐다. 자연은 은총으로 완성된다는 문장은 자연이 은총에 선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22) BNF(프랑스국립도서관) fr. 2090-2092 (1,2부가 3권으로 제책됨) 및 lat.13836(3부). 이 수서본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로는 L. Delisle, "Notice sur un recueil historique présenté à Philippe le Long par Gilles de Pontoise, abbé de Saint-Denis", *Notices et extraits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t.21(1865), pp. 250-252; B. Hauréau, "Yves, moine de Saint-Deni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31(Paris, 1893), pp.143-151.

23) BNF fr.2090, f.9r-55v

는 2부<sup>24)</sup> 는 그의 개종과 순교까지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마지막 3부<sup>25)</sup>는 『프랑스왕의 행적(Gesta regum Francorum)』이라는 별도의 제목과 함께 프랑스 왕조사를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프랑스의 역사는 트로이 기원설로 시작한다. 이는 이미 7-8세기에 등장하여 필리프 2세 치세의 연대기작가인 리고르가 정립한 것으로 프랑스 왕권이 기독교 등장 이전부터 로마제국과는 다르면서도 대등한 기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아울러 메로베우스와 카롤루스, 카페왕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 연대기는 필리프 4세 치세까지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새로 즉위한 필리프 5세의 선정(善政)을 희구하며 끝을 맺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프랑스 왕조사라는 방대한 내용들로 구성된 이 저작은 당연히 수도사 이브의 창작이 아니라 생드니 수도원의 수많은 저작들을 새롭게 편집한 결과였다.<sup>27)</sup>



그림 2. BNF fr. 2040, f.4v  
필리프 5세에게 책을 헌정하고 있는  
수도원장 질 드퐁투아즈와 수도사 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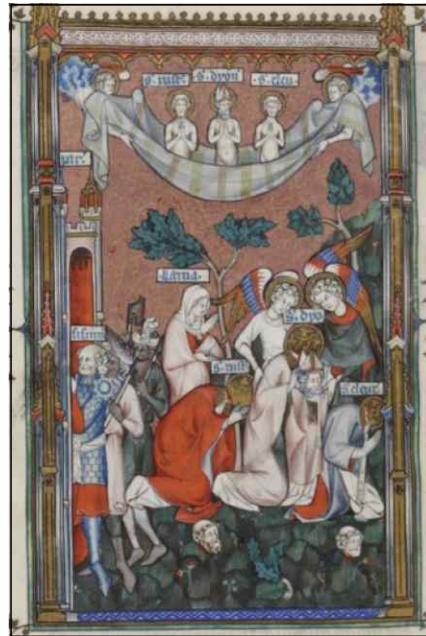


그림 3. BNF fr. 2042, f.48v  
몽마르트 언덕에서 참수당한  
성 디오니시우스와 그의 동료들

이 저작은 애초에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행적을 담은 2부로 구성된 성자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1316년 필리프 5세가 실권을 잡고 왕위에 오르기 시작한 이후 이 책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첫 번째로 라틴어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함께 제본되었다. 두 번째로는 성자전에 메로베우스에서 카페왕조로 이어지는 왕조사 연대기가 3부로 추가되었다. 이 두 가지 변화점들은 수많은 채색삽화들과 함께 이 저작의 정치적 효과들을 보다 증대시켜 나간다. 이는 무력을 동원하여 조카 잔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필리프 5세는 자신의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의 즉위에 대한

24) BNF fr.2090, f.55v-178v; fr.2091; fr.2092.

25) BNF lat.13836.

26) C. Beaune, *Naissance de la nation France* (Paris, 1985), pp. 20-24.

27) C. Beaune, *Naissance*, pp. 90-93.

수많은 반발과 거부에 맞서 그는 성 디오니시우스의 권위와 남성으로만 이어져 온 왕위계승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정당화는 텍스트의 내용만으로 주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수서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언어와 이미지 자체가 지닌 형식적인 요소들에 있으며, 이는 이 책이 왕궁을 드나드는 정치사회의 유력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언어적인 차원에서 이 책은 이중언어의 성향을 보여준다. 먼저 1부와 2부는 몇 개의 장들이 한 단위를 이루면서 라틴어 본과 프랑스어 본이 번갈아 등장하고 3부는 이와 다르게 연속된 두 쪽 전체에 걸쳐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1·2부와 3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필리프 4세가 기획한 성인전이 애초에 라틴어로만 기획되었다가 프랑스어 번역이 이루어져 중간 중간에 삽입되었다면, 필리프 5세가 새롭게 기획한 연대기에는 처음부터 이중언어체계가 적용되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중세는 라틴어와 세속어가 동시에 사용된 시기였다. 라틴어가 성직자의 언어로 다가가기 힘든 권위적인 언어라면 세속어는 세속인의 언어로 일상적인 소통의 언어였다.<sup>29)</sup> 이러한 관계를 정치장으로 옮길 경우 라틴어는 (신성한) 왕권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지닌다면 세속어는 정치사회와 왕권 사이의 대화와 상호인정의 기능을 지닌다. 필리프 4세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에 자신을 갖고 라틴어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의 사망과 더불어 거세어진 귀족동맹과 정치위기는 필리프 5세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최대한 대화를 시도해 봐야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왕권이 지닌 기존의 권위를 상실해서도 안됐다. 이러한 정치적 전략 속에서 라틴어라는 권위가 유지되는 동시에 더불어서 세속어 번역이 병행하여 기록되는 관행이 실시되었으며, 그럼에도 두 언어의 위계적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sup>30)</sup>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4와 5는 1부에서 헌정사와 목차 다음에 시작하는 성 디오니시우스 성인전 서문으로 전자는 라틴어 원문, 후자는 프랑스어 번역이다. 다음으로 그림 6과 7은 3부의 페이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단구왕 피피누스의 치세(751-768)를 후자는 단명했던 루이 10세의 치세(1315-1316)를 보여주고 있다. 둘 다 중앙에는 원래의 기획대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둘레에는 프랑스어가 작은 글씨로 뺄뺄하게 라틴어 원문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분명하게 라틴어와 프랑스어 사이에는 성속의 관계와 같은 위계관계가 나타나지만, 역으로 라틴어 원문은 정치사회의 독자들에게 프랑스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틴어 본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프랑스어를 통해 정치사회의 유력자들에게 실제로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했다.

28) P. Lehugeur, *Histoire de Philippe le Long, roi de France (1316-1322). I. Le règne* (Paris, 1897), pp. 79-105; R. E. Giesey, *Le rôle méconnu de la loi salique. La succession royale, XIV<sup>e</sup>-XV<sup>e</sup> siècles*, F. Regnot(tra.) (Paris, 2007), pp. 27-47; 홍용진, 「프랑스 필리프 5세 통치 시기 정치적 문제들과 왕권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제29호(2012.3), p. 103-109. 중요한 점은 필리프 5세는 아직 여계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여계의 배제는 발루아가문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29) S. Lusignan, “Traduction, bilinguisme et diglossie : le français écrit à la cour de France à la fin du Moyen Âge”, Ch. M. Ternes(ed.), *Études classiques, Fascicule IV* (Luxembourg, 1994), pp. 58-85; “Written French and Latin at the Court of France at the End of the Middle Ages”, J. M. Beer(ed.),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Middle Ages* (Kalamazoo, Michigan, 1997), pp. 185-198; “Langue française et société du XIII<sup>e</sup> au XV<sup>e</sup> siècle”, J. Chaurand(ed.), *Nouvelle 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Seuil, 1999), pp. 91-143.

30) G. Hasenohr, “Discours vernaculaire et autorité latines”, H.-J. Martin & J. VEZIN(dir.), *Mise en page et mise en texte du livre manuscrit* (Paris, 1990), pp. 289-315.



다른 한편, 이 수서본들의 채색삽화들은 내용의 시각적 전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흥미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각 장마다 시작되는 커다란 크기의 채색삽화들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하나의 화면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090번 수서본에는 18편, 2091번에는 24편, 2092번에는 36편, 합해서 총 78편의 커다란 채색삽화들이 그려져 있으며 특히 세속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부분은 라틴어 텍스트가 끝나고 프랑스어 텍스트가 시작되기 전 부분에 삽입되어 있다. 또한 미술사의 차원에서 이 수서본들의 채색삽화는 14세기 전반기 채색삽화의 한 전형을 이룬다. 석상들처럼 굳어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지녔지만 인물들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스타일은 감상자들의 상상보다는 정확한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sup>31)</sup>

이 채색삽화들의 특징들은 이 수서본이 왕권의 문화자본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규모면에서나 기법면에서나 이 채색삽화는 왕국 내 유력자들인 감상자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전범을 내세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사회 구성원들을 왕권의 활동에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은 텍스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종 등장하는 채색삽화 하단부의 그림들에서도 나타난다. 재미있게도 성 디오니시우스에 관련된 그림 아래 바로 14세기 초 파리의 일상생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그림 2, 8, 9).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성 디오니시우스라는 성인과 파리의 사람들이지만, 이 둘을 한 눈에 제공하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왕권이며 국왕은 이렇게 파리 인민들과 성 디오니시우스를 연결시켜 주는 자로 스스로를 감춤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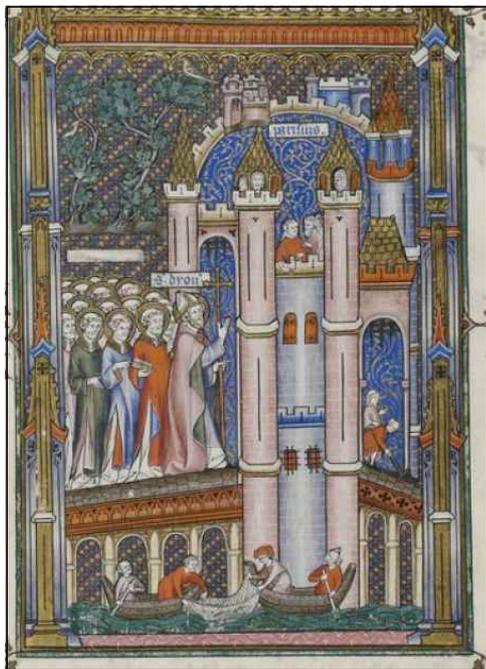


그림 8. BNF, fr.2091, f.97r



그림 9. BNF, fr.2091, f.99r

31) Ch. Sterling, *La peinture médiévale à Paris 1300-1500*, t.1(Paris, Bibliothèque des arts, 1987), pp.54-61.

다른 한편 3부에 삽입된 두 편의 채색삽화는 왕조 연속성에 대한 필리프 5세의 염려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그림 10,11). 이 두 그림들은 메로베우스에서 카롤루스조로의 전환, 또 카롤루스에서 카페조로의 전환은 혈연적으로 무관한 가문들의 교체가 아니라 복잡한 결혼관계의 소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두번째 이미지는 말로는 복잡하게 설명될 관계들을 한 눈에 도식적으로 정리하여 위그 카페의 왕위찬탈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눈에 띄는 오류가 존재한다. 동프랑키아의 왕 루도비쿠스 4세는 그 아래의 링겔하임의 마틸데(896-968)와 혼동할만한 어떠한 연관도 없음에도 후자가 마치 전자의 딸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이는 수많은 가문의 계보정리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의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위그 카페는 카롤루스조의 자손으로서 루도비쿠스 5세의 정통 계승자로 규정된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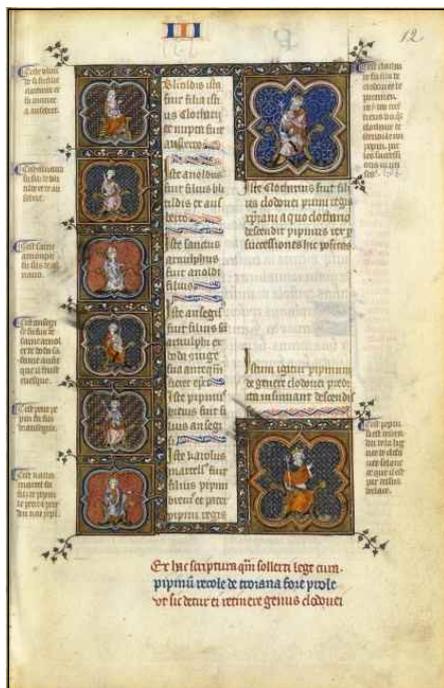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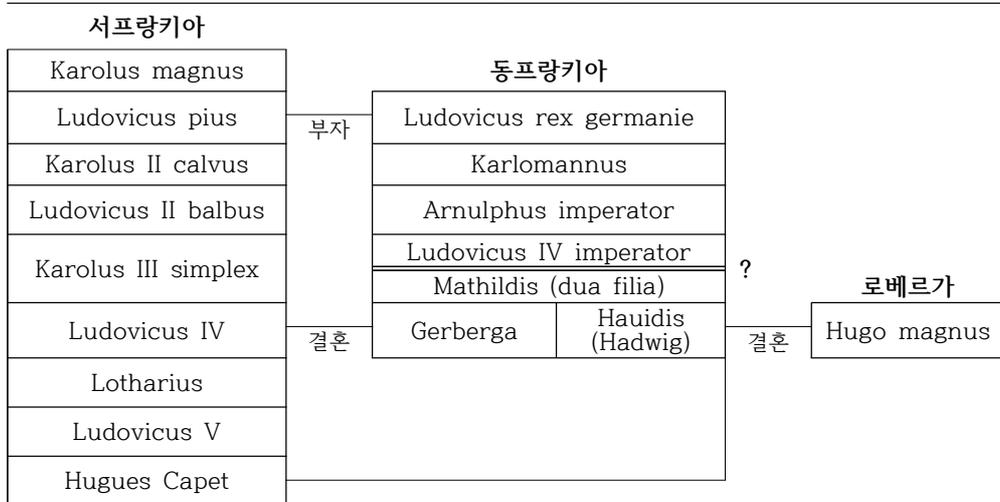
그림 10. BNF, lat.13836, f.12r  
메로베우스-카롤루스 왕조의 연속성



그림 11. BNF, lat.13836, f.78  
카롤루스-카페 왕조의 연속성

32) 링겔하임의 마틸데는 작센의 제후 하인리히 1세의 아내로 5명의 자식을 두었다. 첫째인 딸 하트비히는 도표대로 로베르가문의 위그 대공과 결혼하였고 또 다른 딸 셋째는 서프랑키아의 왕 로도비쿠스 4세와 결혼했다.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둘째이자 장남인 오토는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되며 넷째이자 차남인 하인리히는 바이에른 공으로 그의 후손인 하인리히 4세 또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된다. 즉 10세기 중반 카롤루스 제국의 영토 내에서 가장 강력했던 가문이 바로 작센 가문이었었고 위그 카페가 프랑스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는 외삼촌인 황제 오토 1세와 그 가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 오토왕조를 무시할 수 없었음에도 서프랑키아 중심주의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여성들만을 계보에 기입하고 루도비쿠스 4세와 역지로 연결시킨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M. Schmidt-Chazan은 로베르 가문의 독일기원론이 중세 연대기와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왔는지를 사학사의 차원에서 파헤치고 있다. “Les origines germaniques d’hugues Capet dans l’historiographie française du X<sup>e</sup> au XVI<sup>e</sup> siècle”, D. Iognat-Prat & J.-Ch. Picard(ed.), *Religion et culture autour de l’an mil. Royaume capétien et Lotharingie* (Paris, Picard, 1990) pp. 231-255.

그림 11의 구성



이상과 같이 언어와 이미지라는 형식의 측면에서 성 디오니시우스와 왕조의 역사를 세속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순교 및 와 그의 동료들』은 기존의 저작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왕권의 영속성을 수호하는 성 디오니시우스’라는 13세기의 주제를 정치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들을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적 흐름 속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이제 성 디오니시우스는 왕권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왕권과 인민의 수호성인으로 변신하게 된다.<sup>33)</sup>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아직 필리프 5세의 이상일 뿐이었다. 이 저작이 완성된 1317년, 필리프 5세의 치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왕국의 분열과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성 디오니시우스는 보다 광범위한 세속 독자들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 저작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영향력에 기대어 왕권 중심의 정치적 통일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프랑스어는 특이한 지점을 차지한다. 세속어이면서 종교적 감수성에 호소하고 동시에 이를 프랑스 왕국의 역사에 연결시킨다. 특히 14세기 전반기가 프랑스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위기의 시기이면서 세속어 문자문화가 급성장하고 개인적 신앙심이 태동한 문화적 대변동의 시기였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sup>34)</sup> 그리하여 세속어 사용자인 정치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신앙심에 조금씩 눈을 뜨고 국가 중심의 정치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때에 성 디오니시우스의 이야기는 왕궁을 벗어나 활발한 필사와 함께 파리를 중심으로 차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sup>35)</sup> 마찬가지로 1250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던 『성 디오니시우스의 생애와 행적』도 이 시기에 꾸준히 유포되어 나가고 있었다.<sup>36)</sup>

33) L. Delisle, “Notice sur un livre de peinture exécuté en 1250”, pp. 454-456; G. Spiegel, “The Cult of Saint Denis and Capetian Kingship”, pp. 54, 62-63; C. J. Liebman, *Étude sur la vie en prose de saint Denis*, pp. xxxv-xxxvi.

34)

35) L. Delisle, “Notice sur un recueil historique présenté à Philippe le Long par Gilles de Pontoise”, pp. 258-260; C. J. Liebman, *Étude sur la vie en prose*, p. xxxiv.

36) 14세기 이후 이 저작의 수서본들에 대해서는 C. J. Liebman의 저작을 참조: BNF, fr.696; fr.1040; Londres, BL, Add.15606; Egerton 745. 이중 첫 번째 수서본(BNF, fr. 696)은 루브르 왕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L. Delisle, *Recherches sur la librairie du Charles V*, t. I (Paris, 1907), pp. 305-306).

#### IV. 성 디오니시우스 관련 작품들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14세기 중반 프랑스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연전연패를 금치 못했다. 여기에 나바라왕 샤를 2세에 의한 내전이 발발하고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국왕 장 2세가 포로로 잉글랜드군에 끌려가는가 하면 이 권력의 공백기에 파리시장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와 자크리의 봉기가 발발하게 된다. 하지만 1360년 장 2세의 복귀와 1364년 샤를 5세 이후 전쟁은 소강상태에 빠지고 왕국에는 정치적 보수화와 질서확립이 다시 이루어졌다.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1370년대에 들어와 프랑스는 잉글랜드군을 다시 공략하여 빼앗겼던 영토들을 회복해 나갔다. 즉 14세기 중·후반의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가 이를 극복하고 잉글랜드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시기였으며, 이는 동시에 샤를 5세에 의한 왕권 중심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체계적으로 정착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프랑스에서는 잉글랜드에 맞선 프랑스 왕국 전체에 대한 일정한 소속감 또는 민족감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나갔다. 물론 이는 처음에는 왕권에 의한 일방적인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었지만 왕국 내에서 벌어진 치열하고도 잔혹한 전쟁의 경험은 왕국의 인민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디오니시우스와 프랑스왕권에 대한 이야기는 왕궁 바깥에서 단순히 수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사시의 창작 소재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서사시는 전통적으로 성직자문화와 대립되던 귀족문화의 한 사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궁정에서 활동하던 관료나 성직자는 물론 파리를 활보하던 부르주아들이 함께 향유하던 문화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세속어 문화는 궁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나갔다.<sup>37)</sup>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바로 파리였다. 그리고 이 당시 파리에서 등장한 다섯 편의 서사시들이 성 디오니시우스 및 다고베르투스 1세와 관련하여 주목을 끈다.<sup>38)</sup>

- 『플로랑과 옥타비아(Florent et Octavien)』(1356년 이후)
- 『위그 카페(Hugues Capet)』(1358년 이후)
- 『헝가리의 디외돈네(Dieudonné de Hongrie)』  
또는 『대머리왕 샤를(Charles le Chauve)』(1360-1365 사이)
- 『퀼른의 테세우스(Théséus de Cologne)』(1375)
- 『비뉴보의 시페리스(Cipéris de Vigneaux)』(1400년 경)

37) G. Paris, *La poésie du Moyen Âge. Leçon et lectures*, 2<sup>e</sup> sér., 7<sup>e</sup> éd. (Paris, 1922), pp. 190-191; J.-P. Genet, "Histoire et système de communication au Moyen Âge", J.-P. Genet(ed.), *L'histoire et les nouveaux publics dans l'Europe médiévale(XIII<sup>e</sup>-XV<sup>e</sup> siècles)* (Paris, 1997), pp. 11-29. 사실 서사시라는 장르 자체가 13세기 말부터 역사와 무훈시의 혼합 속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작품들을 포함하여 14세기와 15세기에 등장한 서사시들은 기존의 무훈시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Fr. Suard, "L'épopée française tardive(XIV<sup>e</sup>-XV<sup>e</sup> s.)", J.-M. D'Heur & N. Cherubini(ed.), *Études de philologie romane et d'histoire littéraire offertes à Jules Horrent à l'occasion de son soixantième anniversaire* (Liège, 1980), pp. 449-460).

38)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로는 R. Bossuat, "Traditions populaires relatives au martyr et à la sépulture de Saint Denis", *Moyen Âge*, t. 62(1956), pp. 479-509 참조.

### 『플로랑과 옥타비아』

먼저 1356년 푸아티에 전투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플로랑과 옥타비아』<sup>39)</sup>은 쌍둥이 형제 플로랑과 옥타비아의 모험을 다룬 18,500행의 12음절 시구(alexandrin)로 이루어진 서사무훈시이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와 친분을 맺고 있는 프랑스왕 다고베르<sup>40)</sup>는 모후의 음모로 왕비 플로리몽드와 두 쌍둥이 아들들(플로랑과 또 다른 옥타비아)을 궁 밖으로 내쫓게 된다. 그중 옥타비아는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가게 되고 여기에서 십자군 원정을 떠난 황제 옥타비아를 만나 이교도들과 성전을 수행한다. 반면 플로랑은 상인의 손에 키워졌다가 결국 기사가 되고 다고베르왕을 도와 이민족의 침략을 받은 파리를 구해낸다. 마지막은 성 디오니시우스 이야기와 더불어 파리 방어 이후 다고베르왕이 성 디오니시우스의 성유골을 발견하고 생드니 수도원과 성당을 짓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sup>41)</sup>

이 작품의 소재들은 대부분 14세기 후반의 현실로부터 끌어져 온 듯이 보인다. 십자군과 이민족의 파리침략은 바로 14세기 전반 필리프 6세의 십자군 준비와 백년전쟁을 상기시키며 주인공 플로랑은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백합을, 옥타비아는 로마의 초대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상기시킨다. 또한 이민족과의 전투 중에 다고베르왕이 플로랑과 적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은 장 2세와 막내왕자 필리프의 모습을, 플로랑을 키운 부르주아 클레망은 왕국의 대의에 봉사하는 ‘좋은 도시(bonne ville)’, ‘좋은 부르주아’를 상기시킨다. 물론 파리를 침략한 이교도 종족 방드르(Wandres)는 필리프 6세가 조직한 십자군을 좌절시킨 잉글랜드로 해석된다. 어쨌든 작품의 결말은 프랑스 지배층의 이상으로 끝을 맺는다. 즉 성 디오니시우스의 가호 덕분에 다고베르는 풀려나고 파리는 수복되며 프랑스 왕권이 영원하던 십자군 원정이 전개된다.<sup>42)</sup>

### 『위그 카페』

1358년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그 카페』<sup>43)</sup>는 위그 카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6,360행 160절의 12음절 시구로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이 작품에서 고아로 태어난 위그 카페는 온갖 모험과 고난 끝에 국왕 루이(루도비쿠스 5세)와 친분을 맺게 되지만 루이왕은 독살당한다. 일군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슬람교도와 싸우고 루이 5세를 암살한 대귀족을 처단한 후 위그 카페는 왕위에 오르고 왕국에 평화를 확립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물론 10세기의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줄거리나 문체의 수준에서 이전에 내려오던 다른 여러 서사시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견 단조로워 보이는 줄거리 속에서 연구자들은 흥미로운 특징 두 가지를 지적한다. 그 하나는 줄거리에서 부르주아들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발루아 왕조의 정치적 정당화이다.<sup>44)</sup>

39) 현재 세 권의 수서본이 남아있는데 그 중 두 권은 15세기에(BNF fr. 12564; fr. 24384), 나머지 하나는 16세기에 필사된 것(BNF fr. 1452)이다. 현대 편집판은 *Florent et Octavien: chanson de geste du XIV<sup>e</sup> siècle*, 2t., N. Laborderie(ed.)(Paris, H. Champion, 1991).

40) 작품 속의 인물일 경우에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표기한다.

41) P. Paris, “Florent et Octavien”,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26 (Paris, 1873), pp. 303-335; R. Bossuat, “Florent et Octavien, chanson de geste XIV<sup>e</sup>siècle”, *Romania*, t. 73(1952), pp. 289-331.

42) C. C. Willard, “*Florent et Octavien: The Fourteenth-Century Poem*”, *Olifant*, vol.14, n.3-4 (1989), pp. 179-189.

43) 현재 한 권의 수서본이 남아 있다. BNF, Arsenal, ms. 3145. 현대 편집판은 *Hugues Capet, chanson de geste du XIV<sup>e</sup> siècle*, N. Laborderie (ed.) (Paris, H. Champion, 1997).

44) P. Paris, “Chansons de geste V. *Hue Capet*”,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 26 (1873), pp. 125-149; R. Bossuat, “La chanson de « Hugues Capet »”, *Romania*, t. 71(1950), pp. 450-481; F. Suard, “Hugues Capet dans la chanson de geste au XIV<sup>e</sup> siècle”, D.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야기 설정은 위그 카페가 기사가문 출신의 고아이지만 파리의 푸줏간에서 성장하여 부르주아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황을 반영 하듯 귀족과 부르주아는 의당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위그 카페의 모험과 성공은 항상 귀족과 부르주아 양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또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실제로 14세기는 부르주아들이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사회진출, 정치참여를 활발히 전개하던 시기였다. 왕권 또한 이들의 막대한 부를 국가재정으로 유도하고자 했고, 이는 다시 부르주아들의 정치참여를 부추겼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무장한 부르주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모습은 에티엔 마르셀을 떠올리게 하지만 보수화되어 가는 상황을 반영하듯 작품 속 부르주아들은 왕권의 지지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45)</sup>

두 번째로 주인공 위그 카페는 현실적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발루아 가문의 상황을 대변한다. 메로베우스부터 이어지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신 이 작품은 새로운 왕조의 등장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은 생드니 성당 앞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에서 적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승리는 다시 ‘붉은 왕기(oriflamme)’와 백합문양의 사용을 통해 보장된다.<sup>46)</sup> 실제로 필리프 1세 시기에 등장한 ‘붉은 왕기’는 카롤루스 마그누스를 상징하며 생드니 대성당에 보관되었고, 백합문양은 “몽주아 생드니(Montjoie saint Denis)”라는 함성이 나타내듯 성 디오니시우스에 의한 왕권과 왕국보호를 의미하였다.<sup>47)</sup> 이렇게 해서 『위그 카페』는 마치 에티엔 마르셀 봉기의 실패 후 샤를 5세의 왕권에 고개 숙인 부르주아가 왕권의 지지를 통해 왕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48)</sup>

#### 『헝가리의 디외돈네』 또는 『대머리왕 샤를』

1360년에서 1365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헝가리의 디외돈네』<sup>49)</sup>은 17,500행의 12음절시구로 이루어진 이 서사시로 대머리왕 샤를부터 다고베르까지 이어지는 프랑스왕 4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줄거리는 매우 비일관적이고 짜임새를 결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헝가리 출신으로 프랑스왕이 된 대머리왕 샤를이 독살을 당하자 부당하게도 왕자 필리프가 누명을 쓰고 왕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의 아들이 바로 디외돈네인데 그는 유럽 곳곳을 누비며 모험을 하게 되고 나아가 이슬람교도들과 전투를 펼치게 된다. 이후 그의 아들 다고베르는 용맹함을 떨치며 결국 프랑스왕에 즉위하게 된다. 이 네 명의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큰

Iognat-Prat & J.-Ch. Piacard(ed.), *Religion et culture autour de l'an mil* (Paris, Picard), 1990, pp. 215-225; J. E. Merceron, "Ainsy disoit Huon: le couplage discours-formule référentielle en vers d'intonation dans Hugues Capet", *Olifant*, vol.20, n.1-4(1995-1996), pp. 249-279.

45) A. Gier, "Hugues Capet, le poème de l'harmonie sociale", *Olifant*, vol.8, n.4 (1981), p. 428 ; F. Suard, "Hugues Capet dans la chanson de geste au XIV<sup>e</sup> siècle", pp. 219-222; R. Blumenfeld-Kosinski, "Rewriting history in the Chanson de Hugues Capet", *Olifant*, vol.15, n.1(1990), pp. 33-46.

46) F. Suard, "Hugues Capet dans la chanson de geste au XIV<sup>e</sup> siècle", pp. 222-224.

47) R. Descimon, J. Le Goff etc., *L'État et les pouvoirs* (Paris, 1989), pp. 74-75, 81-83; M. Bloch, *Les rois thaumaturges. Étude sur le caractère surnaturel attribué à la puissance royale particulièrement en France et en Angleterre* (Paris, Gallimard, 1983), pp. 224-225; Ph. Contaminem "L'oriflamme de Saint-Denis aux XIV<sup>e</sup> et XV<sup>e</sup> siècles. Étude de symbolique religieuse et royale", *Annales de l'Est*, 5<sup>e</sup> série, vol.25, n.3 (1973), pp. 179-244; G. M. Spiegel, "Defense of the realm: evolution of a Capetian propaganda slogan", *Journal of Medieval History*, vol. 3(1977), pp.115-134.

48) R. Bossuat, "La chanson de « Hugues Capet »", pp. 474-481.

49) 현재 14세기에 필사된 한 권의 수서본이 남아있다(BNF fr.24372).

비중을 차지하는 자는 11760행을 차지하는 디외돈네이다. 대머리왕 샤를은 334행, 헝가리의 필리프는 2989행, 마지막 다고베르는 200여 행 정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sup>50)</sup>

이러한 특이한 구성 외에 이 작품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프랑스 왕실의 기원을 헝가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1세기 초에 기독교로 개종한 헝가리왕국은 13세기 말부터는 시칠리아의 앙주가문 및 카페왕조와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루이 10세의 둘째 왕비인 클레망스는 물론 나폴리왕국 카를로 2세(1285-1309)<sup>51)</sup>의 왕비 마리도 헝가리 출신들이었으며, 특히 카를로 2세의 딸 마르게리타는 발루아백작 샤를과 혼인하여 필리프 6세를 낳는다. 즉 이 작품은 헝가리 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루아왕조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sup>52)</sup> 이는 또한 이교도 출신임에도 ‘신이 내린(Dieudonné)’ 자이기에 그의 후손 다고베르는 생 드니성당을 통해 가장 기독교적인 왕권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헝가리는 프랑크족과, 다고베르는 클로비스와 대구를 이루게 된다.<sup>53)</sup>

### 『퀸의 테세우스』와 『비뉴보의 시페리스』

1375년경, 즉 샤를 5세 치세 당시에 등장한 『퀸의 테세우스』<sup>54)</sup>는 25,000행의 12음절시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퀸왕(roi de Cologne) 플로리다스(Floridas)의 아들 테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테세우스가 로마왕 에스메레의 딸 플로르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데려가자 에스메레는 퀸을 공격하고, 이 때 퀸을 돕기 위해 파리의 다고베르왕이 아들 뤼도비스(Ludovis)와 함께 당도한다. 뤼도비스와 테세우스는 갈등을 일으켜 결투를 벌이지만 성 디오니시우스의 중재로 화해를 하고 적군을 물리치게 된다. 줄거리 전체는 어디까지나 테세우스의 모험이지만 프랑스왕으로 짧게 등장하는 다고베르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에서 그는 ‘현명왕’의 기원모델로 제시되며 이는 당연히 당시 프랑스를 다스리던 샤를 5세의 이미지와 겹쳐졌다.<sup>55)</sup>

마지막으로 1400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뉴보의 시페리스』<sup>56)</sup>는 7, 895행의 8음절시구로 구성되어 있다. 『헝가리의 디외돈네』나 『퀸의 테세우스』로부터 많은 주인공과 상황들을 빌어 온 이 작품은 다고베르왕이 헝가리의 필리프와 형제로 나오며 시페리스는 바로 이 필

50) 94-125; L.-F. Flutre, “Quelques notes sur Dieudonné de Hongrie, chanson de geste inédite du XIV<sup>e</sup> siècle”, *Neophilologus*, vol.31(1947), pp. 106-110; R. Bossuat, “«Charles le Chauve» Étude sur le déclin de l'épopée française (1)”, *Lettres romanes*, vol.7, n.2 (1953), pp. 107-132.

51) 프랑스어로는 샤를 2세로 앙주가문 출신의 첫 시칠리아왕 카를로(샤를) 1세의 아들이다. 후자는 루이 8세의 아들로 프랑스왕 루이 9세의 동생이며 바로 그의 치세에 시칠리아 만종사건(1282)이 발생하여 이후 앙주가문은 시칠리아를 아라곤왕국에 빼앗기고 나폴리왕국이라는 국호아래 남부 이탈리아만을 통치하게 되었다.

52) R. Bossuat, “«Charles le Chauve» Étude sur le déclin de l'épopée française (2)”, *Lettres romanes*, vol.7, n.3 (1953), pp. 187-199.

53) 이교도에서 기독교로의 개종과 프랑스 왕권의 확립이라는 주제는 장 2세가 소장하고 있던 판본의 『프랑스 대연대기』 권두화에도 나타난다(런던 국립도서관 Royal 16 G VI, f.3).

54) 현재 3편의 수서본이 남아있다. 한 권은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도서관 뱅크로포트 도서관(ms. 110)에, 다른 한 권은 런던 국립도서관(Additional, 16955)에, 또 다른 한 권은 파리 국립도서관(n.a.f. 10060)에 소장되어 있다.

55) 전반적인 소개는 R. Bossuat, “Théséus de Cologne”, *Moyen Âge*, t.65, n.1-2 (1959), pp. 97-133; n.3, pp. 293-320; n. 4, pp. 539-577. 저자 미상의 이 서사시는 이 당시 파리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실제로 샤를 5세는 1364년 완공된 생폴 저택(Hôtel de Saint-Pol)의 한쪽 벽을 그림과 벽걸이 양탄자로 장식할 만큼 테세우스 이야기를 좋아했다고 전해진다(L. Theis, “Dagobert, Saint-Denis et la royauté française au Moyen Âge”, pp. 28-29).

56) 현재 2편의 수서본이 남아 있다(BNF, fr.1637; fr. 24726).

리프의 아들로 등장한다. 이후 내분으로 위기에 빠진 다고베르왕을 이번에는 켈른에서 테세우스가 도와주러 오며 우여곡절 끝에 조카인 시페리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성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강조는 없지만 다고베르왕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57)</sup>

『켈른의 테세우스』와 『비뉴보의 시페리스』 두 작품 또한 당대의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1347년 칼레 함락 당시 ‘칼레의 부르주아들’에 대한 소문은 그것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 두 작품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애국심이나 민족감과 같은 것을 내비치고 있다.<sup>58)</sup>

이상과 같이 살펴본 다섯 작품들의 주인공과 줄거리, 대변하는 사회계층의 성향 등은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고베르투스 1세와 성 디오니시우스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준다. 14세기 후반 성 디오니시우스와 다고베르투스 1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왕궁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전쟁과 더불어 일종의 민족감과 프랑스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파는 라틴어와 세속어라는 이중성 외에 또 다른 중세언어의 이중성인 문자문화와 구전문화의 혼종 속에서 이루어졌다. 연회와 구전으로 퍼져나간 이 이야기들은 모두 중세 말에 인쇄본으로도 출판이 될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였다. 다른 한편 이 작품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각되는 대상이 14세기 후반에 걸쳐 성 디오니시우스에서 다고베르투스 1세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즉 성인의 보호를 받는 왕권보다는 생드니 성당을 세운 왕권으로 초점이 이동한다.<sup>59)</sup> 이는 프랑스왕권의 신성함의 근거를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메로베우스왕조, 특히 다고베르투스 1세의 혈통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와 왕위 계승일을 대관식이 아닌 장례식과 결부시키려는 모습들과 연관된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왕의 혈통이라는 ‘자연’에 도유라는 ‘은총’이 결합되어 프랑스왕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게 되며 이교도는 기독교가 됨으로써 그 탁월한 능력을 완성하게 된다.

## V. 나오며

성 디오니시우스는 중세 전체에 걸쳐서 왕의 수호성인에서 왕조전체의 수호성인으로, 다시 왕국의 수호성인으로 ‘진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13세기 초 카페왕조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14세기 중반 백년전쟁의 시작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 새로운 수용자들은 이를 단순히 향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새로운 서사시들

57) P. Paris, “Chansons de geste II. *Cipéris et Vigneaux*”,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26(1873), pp. 19-41; C. Badal-Dulong, “Cipéris de Vigneaux”, *Romania*, t.71 (1950), pp. 66-78; M. Heintze, “Ciperis de Vigneaux. L’Origine de la famille royale dans l’épopée française”, *Au carrefour des routes d’Europe: la chanson de geste, t.II* (Aix-en-Provence, 1987), pp. 659-673.

58) D. Collomp, “L’écho des Bourgeois de Calais dans *Theseus de Cologne* et *Ciperis de Vigneaux*”, D. Boutet, M.-M. Castellani, F. Ferrand, A. Petit(ed.), “Plait vos oïr bone cançon vallant?” *Mélanges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médiévales offerts à François Suard*, t.1 (Lille, 1999), pp. 183-195.

59) R. Bossuat, “Le roi Dagobert: héros de romans du Moyen Âge”, *Comptes rendus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des Belles-lettres(séances de l’année 1964)* (1965), pp. 361-367.

을 창작해 냈으며 이는 일종의 민족감정과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프 4세가 강조한 프랑스식의 선민의식과 맞물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왕국의 통합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전투지역에서 울려 퍼지던 군호 “몽주아 생드니”는 성 디오니시우스의 이야기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왕권과 수호성인 사이의 관계를 습관적으로 정당화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성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숭배가 어디까지나 상황의 산물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전반기에 들어와서는 성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숭배가 그 힘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419년 잉글랜드가 파리와 프랑스 북부를 점령했을 때 파리와 왕권의 수호성인 성 디오니시우스는 왕국 전체에 걸쳐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잉글랜드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낸 노르망디의 몽생미셸(Mont Saint-Michel) 수도원으로 모아졌다. 그리하여 왕국의 수호성인 성 디오니시우스는 수호천사 성 미카엘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1428년 잔다르크에게 계시를 준 이도 다름 아닌 성 미카엘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호천사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루이 11세는 1469년 몽생미셸 수도원에 근거지를 둔 생미셸(성 미카엘) 기사단을 창건하였다.<sup>60)</sup>

확실히 15세기에 들어와 성 디오니시우스 숭배는 약화되었고, 이 시기에 막 형성된 민족감정은 정체성 형성을 위해 성인을 넘어 새로운 상징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 물론 민족감정과는 별개로 생드니 수도원은 왕실 납골당으로서 이후로도 계속 왕실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갔다. 그러나 1792년 국민공회가 이 납골당을 파헤치기로 했을 때 성 디오니시우스와 왕권은 새로운 혁명적 민족(국민)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sup>61)</sup>

---

60) B. Guenée, *L'occident aux XIVe et XVe siècles. Les États* (Paris, 1981), pp. 121-123.

61) A. Boureau, *Le simple corps du roi. L'impossible sacralité des souverains français, XV<sup>e</sup>-XVIII<sup>e</sup> siècle*, Paris, 2000.